Research Paper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10, No.3, pp.32-38 (2016)

ISSN 1976-6300
http://dx.doi.org/10.20910/JASE.2016.10.3.32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김일태[1,†] · 천용식[2] · 전병규[3] · 정회만[4]

[1,2]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성과확산실
[3]아인벤처스
[4]㈜디 파트너스

A Study on Space-Technology Startup-Business Support Program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Iltae Kim[1,†] , Yongsik Chun[2] , Byunggyu Jeon[3] , Hoiman Joung[4]

[1,2]R&D Performance Diffusion Division, Future Strategy Head offic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3]Ein Ventures
[4]D-Partners

Abstract : This paper explains space-technology startup-business support programs.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began running startup-business support programs from 2013 according to a “space-technology industrialization plan.” In addition, MSIP and KARI have been running startup academies and STAR-Exploration for future entrepreneurs and startup companies since 2015. From these programs, five startup companies were established and they are generating sales. This paper shows the results of the programs, and the program cases of the startup and venture companies are analyzed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The future direction of startup-business support programs that are based on space technology is also discussed.

Key Words : Startup, Venture, Startup academy, Future entrepreneurs, Commercialization, Space technology

1. 서 론

우주산업은 ‘우주경제’로 표현될 만큼 신산업 및 고용 창출 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에 기술적 파급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 성공적인 우주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주기술 산업화는 미진한 편이다.[1]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는 2013년도에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을 수립하여 우주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중 벤처창업 지원은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매 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을 통해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2]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013년 ‘우주기술 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위성정보 활용 신산업 모델 개발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다.[3]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부와 항우연은 아이디어 공모 수준을 넘어 창업 및 사업화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래부와 항우연이 주관하는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외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미래부와 항우연이 주관하는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ceived: Aug. 08, 2016 Revised: Sep. 13, 2016 Accepted: Sep. 20, 2016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70-3673, E-mail: magickit@kari.re.kr
Copyright Ⓒ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2. 국내외 유사 프로그램 추진 현황

2.1 해외 우주기관(ESA) 지원 프로그램

유럽의 ESA는 보유하고 있는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자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 내 주요 거점지역에 Business Incubation Centre(이하 BIC)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BIC는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ESA 엔지니어 및 유관분야 연구자, 벤처투자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간 120여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BIC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4, 5]

이 뿐 아니라 ESA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주기술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로테르담 RSM(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우주기술 기반 사업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60여명의 참가자를 절반으로 나누어 1그룹은 ESA의 특허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2그룹은 ESA 네덜란드 BIC에서 보육중인 창업기업 5개사에 파견되어, 실제 기업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사업전략 등의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았다.

2.2 국내 유관분야(국방) 지원 프로그램

국내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항우연과 유사하게 국방기술로 특화되어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2003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민간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국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였다. 현재 9개소에서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는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군 사업화 및 기술지원, 경영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7]

또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2014년부터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국방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하고 싶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제안자는 국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되며 예선을 거친 후 시제품 제작과 기술멘토링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본선에서는 제작된 시제품과 사업계획을 기술사업화 전문가 앞에서 발표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는 상금을 통해 창업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유치 설명회, CEO 조찬회 등에 초청되어 지속적으로 잠재고객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8]

3. 국내 우주기술 기반 지원 프로그램

3.1 우주기술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우주기술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는 우주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주기술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통해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하였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공,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12개의 팀을 구성하였다.[9]

2015년 창업아카데미는 기본창업캠프, 심화창업캠프, 심화육성캠프로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8월에 시행한 기본창업캠프는 3박 4일 과정으로 창업 기본교육 및 창업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우선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우주분야 대표기업인 쎄트렉아이 및 무료통화 앱을 서비스하는 브릿지모바일의 대표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돕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기법 및 항우연 보유기술에 대한 핵심가치 도출 실습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항우연 보유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해보고 창업 멘토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아이디어를 다듬어 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략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았다. 마지막 날은 기획한 창업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창업멘토의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기본창업캠프를 마무리하였다.

심화창업캠프는 1박 2일 과정으로 9월에 진행하였다. 기본창업캠프에서 만들었던 아이디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항우연 전 원장 및 미래부 우주분야 담당자 초청 특강, 항우연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우주정책 및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화육성캠프는 본 캠프의 마무리 과정으로, 10월에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Figure 1은 학생들이 심화육성캠프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여주는데, 지난 캠프들을 통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었다. 마지막 날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평가를 진행하였다. 항우연 미래전략본부장을 주축으로 교수 및 현직 CEO,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을 초빙하였고 학생들이 전문가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Fig. 1 Startup-academy activities

Table 1은 총 12팀이 제안한 우주기술 기반 창업 아이템을 보여주는데, 각 팀은 항우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밀 GPS 기술, 광대역 소음제어 기술, Eye Tracking 기술)을 활용하거나, 우주항공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DME, 비콘, 증강현실 등)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의 사업계획서는 주제적합성/창의성, 시장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아이디어 홍보영상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다. 이 뿐 아니라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창업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이 참가자 중 3개팀(5팀, 9팀, 10팀)의 소속 학생들은 창업을 시행하였고, 2개팀(9팀, 11팀)은 타 창업대회 및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Table 1 Startup-Academy Business Ideas

구분	사업 아이템	후속실적
1팀	Eye Trackin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글래스	
2팀 (장려상)	Bike Shield - 정밀 GPS 기술을 적용한 도난방지 장치	
3팀	POS와 모바일간 화면전환 기술을 이용한 전자영수증	
4팀	스토나비·핸지뷰 - 블랙박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크라우드소싱 로드뷰 어플리케이션	
5팀 (최우수상)	A.Key - 항공우주 DME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스마트 액서서리	창업(일루직소프트)
6팀	Space Therapy - 우주환경을 활용한 심신치료 서비스	
7팀	애완견 흡음 마스크 - 광대역 소음제어 기술을 활용한 흡음 마스크	
8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드론 레이싱 게임	창업(DHJM)
9팀	Zero DB - 광대역 소음제어 흡음기술을 활용한 소음차단 귀마개	전남대 창업대회(우수상)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대회(동상)
10팀 (우수상)	HARU - 차세대 교육용 우주풍선	창업(나라스페이스)
11팀	위험을 즉시 알려주는 비콘 가로등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경찰청장상) 해양대 캡스톤과제 선정
12팀	날아서 세계속으로 - 드론 원격제어를 통한 관광지 체험 서비스	

3.2 STAR-Exploration 사업

2015년 2월 미래부는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STAR-Exploration)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본 사업은 우주기술 기반 창업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체계적 지원으로 스타창업가 및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5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이 중 5개 내외의 우주전문 벤처기업 육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10]

항우연은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예비창업자 부문과 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 및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인(이하 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업 부문은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11]

참가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주기술이나 항우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되고, 이를 위해 항우연은 'KARI 창조경제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기술(91건) 및 특허(750건)를 공

개하였다.[11]

Figure 2는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준다. 사업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항공우주 관련학과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고, 국민대 및 전북대 등과 협업하여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등의 공공기관 및 학회와 연계하여 사업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Fig. 2 STAR-Exploration poster (left) and business presentations (right)

한 달간의 공모과정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심사하기 위해 3단계의 선정평가 과정을 진행하였다. 우선 서류심사에서 사업부합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을 등을 검토하여 2배수 내외로 아이디어를 선별하였다. 2단계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 대상으로 사전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최종 발표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화 컨설턴트를 통해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단계는 최종 발표심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자가 직접 발표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이를 통해 Table 2와 같이 예비창업자 3팀, 기업 3개사의 제안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우연은 별도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였다. 경쟁입찰로 선정된 E사와 D사는 각각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 특화된 민간 컨설팅 기관이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총 2천5백만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E사가 주도하여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을 10개월간 지원하였다. 창업 컨설턴트가 예비창업자와의 1:1 멘토링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멘토링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Table 2 STAR-Exploration Business Items [12]

제안자	과제명	주요내용
박재필 (연세대)	슈팅카메라	Sling Shot과 카메라를 결합하고 큐브위성 자세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일정고도에서 주변지역의 영상자료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제품 개발
이경민 (항공대)	웨어러블 VR 기기를 활용한 항공우주 교육 어플리케이션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항공우주 교육용 VR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영석 (과학고)	비행선과 드론을 융합한 항공촬영 및 위성통신 중계용 비행체	0.1m~1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및 무선인터넷 중계가 가능한 비행성과 드론이 결합된 무인비행체 개발
㈜컨텍 (항우연 창업기업)	NTP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시각동기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우주응용분야 임무를 위한 지상시스템의 NTP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시각동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퓨처테크날러지	삼차원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한 지구투어 가상현실 체험 킷	지구 궤도 위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며 지구의 모습을 체험하는 우주탐사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
플로우플러스(주)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 로켓 키트 개발	실제 로켓의 연소, 추진, 비행과정을 구현하고, 실제 로켓과 유사한 내부구성을 가진 교육·레저용 하이브리드 모델 로켓 키트 개발

또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비창업자가 요구하는 장비나 재료를 구매해서 제공해주었다. 혹은 예비창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엔 시제품의 일부를 E사에서 직접 위탁받아 제작 후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한 예로 Table 2의 예비창업자(박재필)의 경우는 창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슈팅카메라'로 변경하였고, 시제품 설계 및 제작을 E사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기도 하였다.

기업 부문은 D사가 주도하여 사업화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다. 사업화 컨설팅은 공통적으로 각 기업의 환경분석 및 시장분석을 진행하고, 각 기업의 니즈에 맞게 특허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멘토링 등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시제품 제작 부분은 기업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제작과정을 관리하였다.

이와 별도로 항우연은 각 과제별로 항우연 기술멘토를 배정하여 지원하였다. 기술멘토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기업이 수행하는 내용을 지도해주었으며,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 또는 미팅 등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속적 후속지원과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인 'STAR 창업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Figure 3은 STAR 창업커뮤니티 발족식, 중간워크숍, 최종발표회 활동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선

선배 CEO 특강 및 기술멘토와의 대화, 과제 점검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과제 점검 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캐피탈, 방송국 종사자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 뿐 아니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고흥 우주과학관과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 및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한 기업은 수요고객을 확보하여 납품계약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다.

Fig. 3 STAR startup-community activities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비창업자 3팀은 전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창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주교육용 VR 콘텐츠를 개발한 일루직소프트(대표자 이경민)는 Fig. 4와 같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VR Space Adventure' 앱을 서비스 중이며, 2016년 7월 기준으로 5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 전시 및 VR 강의 등을 통해 약 7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96팀이 참석한 문화창조융합센터 주관 '융복합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종 결선에 오른 12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13]

기업부문에서는 항우연 연구원 창업기업인 컨텍(대표자 이성희)이 가장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Figure 4에 보여주는 CD는 실시간 NTP(Network Time Protocol)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이다. 발사체 임무 및 위성관제 시 실시간 시각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한 제품으로, 실시간 시각동기가 필요한 국립연구원, 대기업 등에 판매되어 2016년 8월 기준으로 약 34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뿐 아니라 금융권 및 출연연까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 VR Space Adventure app in Android (left) and NTP monitoring software (right)

이 뿐 아니라 Fig. 5와 같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을 취재하고 보도해주었다. 사업 선정자 인터뷰 및 활동내역,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예비창업자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Fig. 5 STAR-Exploration News Articles [14, 15, 16]

3.3 발전방향 제언

위의 사례에서 사업들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공사례가 많지 않고, 그 규모나 파급효과가 우주산업 전체에 미치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인적·물적 자원 확보, 창업 네트워킹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창업 지원, 창업기업 안정화까지 단계별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이다. 우주기술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STAR-Exploration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창업가로 성장시키는 단계까지는 구축하였지만, 창업 이후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항우연은 후속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두드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STAR-Exploration 사업 우수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선 및 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기업에만 지원되는 부분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 및 인력 확보이다. 앞서 사례에서 보면 ESA와 방위사업청은 각각 BIC,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다. 각 센터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멘토링 및 관련 연구과제 협업 등을 통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항우연은 담당부서 차원에서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역센터는 두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지역별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선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는 KIC(글로벌혁신센터)와 같은 기관과의 전략적 업무협력을 통해 그들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주기술진흥협회와 같은 우주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기술 벤처센터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네트워킹의 확대이다. 현재 운영중인 STAR 창업커뮤니티는 STAR-Exploration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확대하여 항우연 창업기업을 비롯한 우주분야 현직 CEO, ETRI 및 ADD등의 유관분야 전문가, 우주항공 및 창업 관련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결 언

미래부와 항우연이 추진하는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우주기술 사업화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창업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항우연의 기술들이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성과를 활용한 벤처창업이 촉진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후 기

본 연구는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항우연 주요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미래부 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참 고 문 헌

[1] NATIONAL SPACE COUNCIL, “SPACE Technology Industrialization Strategy”, pp. 1, November 2013.

[2] SPACE Development Working Council, “SPACE Technology Industrialization Strategy 2015 Action Plan”, pp. 5, February 2015.

[3] I. T. Kim and Y. S. Chun, “A Study on Cases and Policy for the Venture Business Based on Space Technology”,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9, No. 2, pp. 47-50, June 2015.

[4] Sam Waes, “ESA SPACE SOLUTIONS DOWN TO EARTH”, pp. 1-12, April 2016.

[5] ESA, “ESA BUSINESS INCUBATION CENTRES”, www.esa.int/

[6] ESA, “SMART SPACE PRODUCTS ON EARTH”, www.esa.int/
[7] http://blog.naver.com/dapapr/220542517826
[8] http://defense-startup.kr
[9] KARI 2015-220-2, “Announcement for 2015 STAR-Exploration Academy”, pp. 1-2, July 2015.
[10] MSIP, “The plan for STAR-Exploration”, pp. 5, February 2015.
[11] KARI 2015-220-1, “Announcement for STAR-Exploration”, pp. 1-6, April 2015.
[12] Press Release of MSIP, “The First STAR-Startup Community Kick-off for STAR-Entrepreneur”, pp. 4, July 2015.
[13] http://kcreativelab.blog.me/220759973880
[14]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07240
[15] http://www.hankookilbo.com/v/0653ffee77104b2aac504177e4e76f02
[16] http://www.etnews.com/20160708000194

저 자 소 개

김 일 태
2006년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졸업. 2011년 포항공대 기술경영 석사.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확산실 선임기술원으로 재직. 관심분야는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

천 용 식
1985년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1987년 동 대학원 석사. 2009년 충남대 통신공학 박사.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확산실 실장으로 재직. 관심분야는 기술사업화, 위성활용 및 수출 등

전 병 규
2012년 충남대 경제학과 졸업. 2015년~현재 동 대학 특허법무대학원 석사과정. 현재 아인벤처스 기획운영부 부장으로 재직. 관심분야는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

정 회 만
2004년 우석대 정보통신학과 졸업. 현재 ㈜디 파트너스 사업화컨설팅팀 PM으로 재직. 관심분야는 기술사업화 및 특허전략 등